

하나됨과 나눔

##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지난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종교개혁기념주일 특강이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주제 : 종교개혁이 기독교 미술에 끼친 영향  
강사 : 김진명 목사 (장신대 구약학)
-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0일(둘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꾸러기학교 가을여행이 10월 29일(화)부터 2박3일간 안동에서 있습니다.
- 10월 9일에 있었던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 정산이 마무리 되어 수익금 전액을 개척자들에 전달하였습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오늘부터 에스겔서로 바뀝니다.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 감사 )

서병옥 · 임진숙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박영선 집사 ( 생일 감사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동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방교회 622-5036-55-003053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3 호

2024년 10월 27일

# 사랑방공동체

## TK2000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개혁운동의 방법은 교육입니다

1. 개혁운동과 교육: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개혁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속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종교(교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방법으로 교육이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2. 종교개혁과 루터의 교육: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개혁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사용하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라틴어를 독일어로)하는 일에 힘썼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전직 수녀와 결혼하여 6남매를 낳았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즉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場)이고, 가정은 신앙교육의 한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터는 '공교육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합니다. 교육의 주체를 교회(수도원)에서 국가로, 교육의 대상을 귀족 등 일부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는 공교육법을 제정하게 하였습니다. 루터는 신앙교육에 필요한 '교리문답서'와 교사지침서 가정교재, 학교교과서 등을 만들었고, 음악을 사용하여 교육의 통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개혁운동에서 교육을 사용한 사례들

1) 종교개혁과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1517년 루터에서 시작한 16세기의 종교개혁운동은 칼뱅(존 칼빈)에 이르러 운동이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559년 '제네

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자, 장로교 설립에 기여한 존 낙스(John Knox)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2) 덴마크 계몽운동과 그룬트비 목사: 그룬트비 목사는 국민계몽운동을 통해 황폐화된 덴마크를 오늘의 덴마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성인들의 평생교육과 공동체 정신을 위해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를 자유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과정으로 '자유학교'(Free School)를 설립하였습니다.

3)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학교설립: 1884년은 한국 개신교의 시작점이자 기독교학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학교설립에 힘을 쏟아 교회 부설학교들이 1909년에 589개교, 13,427명에 이르렀습니다. 교회학교는 주일학교와 주간학교를 병행하였고, 솔내교회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전에 초등학교 건물을 먼저 세웠습니다.

4) 고난의 시기와 성경구락부: 1929년 권세열(Francis Kinsier) 목사가 결인 6명을 모아 시작한 '성경구락부'는 어려운 시기(일제탄압, 해방 후 혼란, 한국전쟁)에 취학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954년 전국에 617개, 인원 7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현재 54개교가 정규 중고등학교로 승격하였고, 100개 처소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200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였습니다.

4. 사랑방공동체의 교회개혁운동과 교육: 사랑방공동체는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앞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교육을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합교육과정과 공동체지도력훈련이 있으며, 진정한 기독교교육(기독교대안학교)의 실천을 위해서 공동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말하며, 교육에 힘써온 이유입니다. 내일에 맺힐 개혁의 열매는 오늘 우리가 힘쓰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태일 목사



##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내가 주인 삼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

성경 : 에베소서 4장 1-16절

제목 : 품격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1. 내용: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What)

<문단구분>

1~6절 하나 됨을 지키십시오

7~16절 교회의 하나 됨과 성장

2. 의미: 성도들을 더 높은 단계로 불러주셨다. (Why)

1)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3) 평화 속에서 연합을 이루십시오.

3. 적용: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How)

1) 품격은 겉모습 이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2) 자기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자.

3) 겸손함이 경청하게 만든다.

##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후기

1. 도보여행,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아영: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좋기도 했어요. 그런데 멧쟁이학교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진지: 6학년인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후배들도 힘들 테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용: “이번에도 잘 걸어야지!” / 민용: “지옥의 시작이구나.”

2. 도보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아영: 다 끝나고 사진 찍었을 때요. 마지막 도보여행이라 좀 아쉽기도, 슬프기도 했어요.

진지: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가족처럼 잘 챙겨주신 것이요. 특히 민지 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엄마가 편지 써준 것도 기억에 남아요. 또 천국처럼 아름다운 안동의 경치요.

진용: 숙소에서 축구 볼 때와 언덕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요.

민용: 도보여행을 마치고 둥글게 모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교가를 불렀을 때요.

3. 도보여행 때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아영: 요즘 시작하는 게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끝 말잇기도 했어요. 버스에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등등 신앙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진지: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장난도 치며 걸었어요.

진용: 농담하며 걸었어요. / 민용: “내일이 계단 지옥이래~!”

4.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도보여행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안 맡고 싶나요?

아영: 선생님이요. 간식을 더 많이 받으시니까요~~ 엄마 선생님은 견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

싫은 역할은 선배예요. 책임감이 크고 동생들의 투정을 들어야 해서 힘들어요.

진용: 제일 후배가 되고 싶고, 제일 선배는 되기 싫어요.

민용: 지금의 나. (그래도 좀 적응이 돼서 편할지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4 : 3-6      인도자  
1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288 21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에베소서 4 : 11-24      설교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143) 따뜻한사랑방  
“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85                      다함께  
438(1)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석용범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개혁과 갱신.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개혁의 방법으로 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갱신은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충돌이 따릅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루터의 개혁. 부당하고 불합리한 교회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기준이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박동인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졸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화려할 때인 가을의 풍경을 담아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여행 이후에 너무 가까워진 친구들이 멋진 한복을 입고 깔깔 거리며 장난을 칩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서로의 말 한마디에 자지러지듯이 웃으며 놀니다. 하지만 노미현사모님께서 촬영을 시작하시니 진짜 모델처럼 오더를 잘 듣고, 진지하게 촬영을 하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사진이 예술작품 같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푸릇푸릇 생기가 넘치던 계절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이 되는 가을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빨간잎, 초록잎, 노란잎, 주황잎 등 화려한 색으로 변해가는 나무들을 보니 너무 예뻐했습니다. 꾸러기들이 어떤 잎이 예쁜지, 곤충이나 새 친구들은 없는지 관찰하면서 가면서 정말 천천히 구경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며 쉽게 지나가면 보기 어려운 것을 발견해나가는 재미에 아이들은 많이 즐거워합니다. 너무 멋진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사랑방식구들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화려한 자연모습을 보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오랜만에 꼬박 학교에서만 지낸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치 처음 해보는 공부인 냥 여기저기 핑크를 내기도 했습니다. 숙제도 헛갈려 하고 준비물도 깜박, 가져오지 않기도 했지요. 그래서 운동장을 뛰는 친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운동장 뛰기는 벌칙 이라기 보다 놀이 또는 체력 향상의 의미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좋아서 자주 뛰게 하기도 한답니다.^^

### 배움과 가르침

요즘 가을이 한창이라 떨어진 낙엽에 지달한 돌맹이와 주목나무의 빠알간 열매를 싸서 길쭉한 폴로 싸매서 주먹밥을 만들어 한 상을 차리는 소꿉놀이가 한창입니다. 바위에 성근 돌을 갈아 가루를 내서 가만 바위가 허연 색이 되었답니다 .. 무궁무진한 놀이에 어린이들을 지나쳐 오가며 교사들도 따라서 행복해 지기도 한답니다.

금요일에는 6학년들이 졸업 앨범에 사용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평상복과 한복과 힙한 의상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품을 잡아 보았는데 한장 한장이 참 명작품이었습니다. 창의력과 예쁜끼를 맘껏 펼쳐 보는 시간이었고 정말 졸업을 하는가.. 하는 말할 수 없는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매일 즐겁게 놀고, 공부하는 어린이학교 소식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 멋쟁이학교

깜깜한 새벽에 멋쟁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함께했습니다. 멋쟁이들이 서로 기도제목도 나누면서 열심히 참여했던 만큼, 많은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참여하고서 부리나케 일찍 떠난 곳은 서울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렸던 10km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 날을 위해 평소에 꾸준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빛을 발했고, 전원 완주했습니다. 김성우 강사선생님도 점심식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이를 통해 또 특별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새로운 공동심화학습 주제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노벨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테마여행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포인트들 속에서 외국인과의 만남들이 새로웠습니다.

그 와중에 6학년이 대학 입시 면접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로 준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6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